

EXPOCOMM KOREA 2002

‘최신 기술을 맘껏 체험할 수 있는 국내 최대 정보통신 전시회’



국내외 정보기술(IT)제품과 기술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제 7회 국제정보통신 및 이동통신전시회·세미나 (EXPOCOMM KOREA 2002)가 정보통신부가 주최하고, 본 협회와 (주)코엑스, (사)인터넷전화협회, E.J.Krause & Associates.Inc가 공동 주관하여, 지난 2월 26일부터 3월1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서울 삼성동 무역센터 코엑스에서 개막됐다.

이번 행사는 한국무역협회 주최 'IT코리아 2002'가 함께 개최돼 국내 최대의 IT텔레콤 박람회로 눈길을 끌었다.

코엑스 본관 3층 대서양 홀에서 열린 '엑스포컴 코리아 2002'는 국내 정보통신 최대 전시회답게 3세대 이동통신 IMT-2000 및 cdma2000 1xEV-DO, 인터넷전화(VoIP), 무선인터넷솔루션, 블루투스 등 차세대 기술로 부각되는 각종 기술이 직접 시연되었으며, WLL, GPS, PDA, CTI, HDR 등 다양한 최신 정보통신 기기들도 방문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엑스포컴 코리아 2002’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 보기로 하자.<편집자 주>

총 5만 명의 관람객이 다녀갔으며, 10개국 130여개 업체가 참가한 엑스포컴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단연 3세대 이동통신과 컬러폰 이었다.

국내 이동통신사 중 SK텔레콤은 세계 최초로 상용화된 800MHz대역의 동기식 IMT-2000 체험관을 마련, 2.4Mbps급의 초고속 화상이동전화를 선보였다.

KTF는 3세대 동기식 시스템과 함께 아이콘 방식의 무선인터넷 멀티팩, 무선 구내전화서비스 등을 시연했다. 또 실제 차량(대우 매그너스)을 지면에 수직으로 세워 위치위성(GPS)을 이용한 첨단 차량서비스(텔레메틱스)를 선보여 관람객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휴대폰 업계의 컬러 경쟁도 뜨거웠다.

삼성전자는 26만 컬러 박막액정화면(TFT-LCD)과 40화음 벨소리기능을 결합한 cdma2000 1x EV-DO 휴대폰(SCH-E120)을 내놓았다.

4,096컬러 TFT-LCD에 40화음 기능을 추가한 신제품인 SCH-X430'과 해외 수출용으로 개발돼 국내에도 출시 예정인 PDA폰도 눈길을 끌었다.

LG전자도 비동기식 IMT-2000 휴대폰과 cdma2000 1x EV-DO 휴대폰 등 최신 기종을 대거 출품했다. KT는 최근 시작한 무선랜 서비스인 '네스팟'과 초고속 통신인 메가패스를 집중 홍보했다.

초고속 무선 서비스 시연에 관심 집중



▲ 이번 전시회는 EXPOCOMM과 IT코리아 2002가 동시에 개최돼 업계 관계자는 물론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해외 업체로는 퀄컴 등이 참여했으며, 벤처기업인 윌텍정보통신·애니유저넷 등도 전시회에 자리를 마련했다.

이와 함께 국제컨퍼런스, 신기술 발표회, 국내 IT기술 해외이전 설명회, 바이어 초청 구매상담회 등 다양한 부대행사가 동시에 개최됐다.

특히 올해 엑스포컴 행사에서는 국내 16개 인터넷폰 업체가 참여하는 '인터넷 전화 특별관(Internet Phone Pavilion)'을 별도로 구성, 국내 제품의 품질을 직접

비교 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부대행사로 26, 27일 이틀 간 퀄컴의 조안 루데니어스 부사장과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컨퍼런스를 개최, 3, 4세대 이동통신 및 차세대네트워크(NGN)에 대해 협의를 가졌다. 또 27, 28일에는 전파 및 방송 관련 CEO가 대거 참가하는 전파진흥협회 주관의 'IT CEO 포럼'을, 27일에는 '정보통신기술 해외이전 설명회' 등을 개최됐다.

이번 전시회에서 가장 참관객들의 관심을 끌은 것은 1xEV-DO 기술로, 이론상 2.4Mbps의 데이터 전송 속도를 지원, 기존에 4~5분 걸리던 파일 다운로드를 10초 이내에 수행할 수 있는 이 기술의 시연으로 관람객들은 최신의 기술을 바로 앞에서 본다는 것 때문에, 또한 사업자들은 먼저 이 기술을 적용했다는 점을 홍보하느라 서로 바빴다.

SK텔레콤과 KTF는 이서비스를 월드컵 기간에 맞춰 상용화한다는 전략을 수립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 전시회를 통해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험 장치를 동원, 주도권 잡기에 바빴다.



▲ 삼성전자는 여전히 단말기 부문의 강세를 바탕으로 많은 관람객들의 주목을 받았다.

단말기 제조업체 역시 이 부분에서는 마찬가지였다.

삼성전자가 선보인 EV-DO단말기(모델명: SCH-E120)는 카메라가 내장돼 있어 상대방의 얼굴을 보면서 전화통화가 가능, 멀티미디어 서비스에 대응한다.

이 제품은 26만 TFT-LCD를 채용해 스트리밍 방식의 동영상을 즐길 수 있고, 40화음 벨소리를 채용했다.

삼성전자와 마찬가지로 LG전자도 VOD(주문형비디오)폰으로 이름 붙여진 카

메라 장착 1xEV-DO 지원 단말기를 선보였다. 2.2인치 대형 LCD를 채용한 이 제품 특징은 LCD부가 기존 전화기처럼 고정된 것이 아니라 18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손에 잡히는 무선인터넷?!

이미 너무 많은 사람들이 알아버린(?), 그래서 너도나도 전문가가 되어버린 무선인터넷 역시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자신의 실체를 눈으로 보여주는 기회를 가졌다.

SK텔레콤은 자사의 무선인터넷 '네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별도 체험관을 마련했고, KTF도 브루 기반의 무선인터넷 멀티팩 홍보에 나섰다.

또한 무선 기반의 위치추적시스템(GPS) 역시 정보통신전시회에선 빠질 수 없는 메뉴가 되어 버렸다.

SK텔레콤은 네이트의 체험부스에서 PDA나 이동전화기로 실시간 교통정보를 받을 수 있음을 강조했고, KTF는 실제 차량(대우자동차 매그너스)을 통해 GPS를 이용한 주행경로안내, 긴급구난, 차량조작 등 첨단 차량서비스를 시연하는 '텔레매틱스' 코너를 마련했다. 또한 서울시내 곳곳에서 이동중인 단말기를 정밀하게 추적할 수 있는 엔젤아이 코너도 선보였다.

무선인터넷 대중화를 위한 기기로 주목받고 있는 PDA분야는 이번 전시회에 단말기 업체 중 삼성전자와 지메이트가 있었고, 솔루션 부문엔 모코코가 나왔다.

삼성전자는 무선핸드PC '넥시오(NEXiO)'로 cdma2000 1X 및 무선인터넷, GPS 기능 등을 시연했다. 넥시오는 5인치(800 480) 화면을 채택해 좌우 스크롤 없이도 인터넷 사용이 가능하다. 윈도우CE 3.0 플랫폼 빌더를 기반으로 인텔 스트롱암 206MHz의 CPU, 32MB ROM, 64MB SDRAM을 장착했다. 넥시오는 차량항법 장치인 GPS, 디지털카메라(30만화소), 11Mbps 무선LAN, 블루투스 등을 옵션으로 제공하고, 마우스 키보드 메모리카드 등 주변기기와 연동할 수 있도록 USB 포트를 내장했다.

삼성전자는 국내형 PDA폰(모델명: SCH-M330)도 선보였다. 국내 최초 한글 지원이 가능한 팜OS를 탑재했으며, 16화음 멜로디 기능, 외장형 카메라 기능, GPS 기능 등 다양한 기능을 강화했다.

지메이트는 국내에서 상용화된 유일한 리눅스 PDA '요피'를 시연했다. 요피는 지메이트가 개발한 리눅스 OS '리누엣'을 탑재한 PDA 제품으로 스트롱암 206MHz CPU, 64MB RAM 및 16MB ROM을 탑재했다.

요피는 6만5천색상의 3.5인치 TFT-LCD(240 320)를 장착했으며 폴더형으로 일반 이동전화기와 유사한 외형이 특징이다. 엄지손가락으로 누를 수 있도록 설계된 초소형 키보드가 내장됐고 로터스노츠와 아웃룩 2000의 동기화가 가능하다. MP3기능도 지원한다. 크기 69 103 16.3mm, 무게144g.

카 텔레메틱스, 관람객 눈길끌어



▲ LG전자는 컬러 휴대폰과 IMT2000 휴대폰 등 최신 기종을 대거 출품했다. 사진 앞으로는 Volp 인터넷폰 무료 체험관이 보인다.

지메이트는 cdma2000 1X 모듈을 탑재한 제품도 공급할 예정이다.

솔루션 업체인 모코코는 이번 전시회에서 320 240 PDA 사이즈 패키지로부터 240 320, 160 240 사이즈의 다양한 해상도로 구성된 제품이 선보였다. 차세대 휴대폰용 GUI인 렉시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업계에서 꾸준히 주목 받는 블루투스는 여타 전시회에서는 특별관이 만들어지는

등 환대를 받았지만 이번 전시회에서는 참여 업체가 없이 찬밥 신세를 면치 못했다. 참여 업체는 다가전자와 이니티움. 다가전자는 오랜 국내전시회 참여 업체이다. 전기/전자/통신관련 해외 인증 서비스를 전문으로 하는 이 업체는 블루투스 테스트를 진행하며 국내에 친숙해졌다. 블루투스 뿐 아니라 모든 통신제품에 관련



▲ S텔레콤은 자사의 무선인터넷 '네이트' 홍보는 물론 'CDMA2000 1A×EV-DO 서비스를 시연해 많은 관람객의 발길을 잡아 두었다.

된 인증을 주요업무로 한다.

이니티움은 액세스포인트를 개발하는 업체. 이 회사 제품은 핸드오프 및 로밍이 지원되는 특징을 지닌다.

핸즈프리업체로는 코리아아피스, 에어로넷텔레콤 등이 참여했다.

코리아 아피스는 무전원 핸드프리 '애니캡'을 필두로 충전겸용 데이터통신케이블을 소개했다. 그리고 에어로넷텔레콤은 핸드프리 'ASE-Nxx시리즈/SEF-G100'을 선보였다. 이 제품은

GSM/CDMA/TDMA방식 통화를 지원하는 세미 듀플렉스 방식이다. 음성녹음 기능도 내장됐다.

문자입력 솔루션 분야에서는 네오파드 및 아마사소프트, 키코프레이션 등이 참여했다. 아마사소프트의 제품은 이동전화기용 문자입력 솔루션 '퀵타'. 경쟁사에 비해 한글은 최대 97%, 중국어는 95%, 일본어는 최대 116% 정도의 입력효율이 높다고 아마사소프트는 전했다. 그리고 네오파드 제품인 데이터 입력 솔루션은 최초의 모바일 다국어 입력 환경을 제공한다. 그리고 차세대 정보가전의 글로벌화와 지역화를 제공하는 모든 제품을 지원한다고 한다.

키코프레이션은 입력코자 하는 문자의 예측이 가능한 문장입력 솔루션을 선보였다. 삼성전자, LG전자, 세원텔레콤, SK텔레텍 등 15개의 국내 회사와 계약한 이 회사의 eZiText는 중국, 유럽, 북미로 수출하는 단말기의 표준 솔루션임을 자부하고 있다.

무선인터넷 업체로는 애니넷 등이 참여했다. 애니넷은 애니웹 에디터 제품을 통해 모바일 세상에 알려졌는데, 이 제품은 멀티미디어 기능과 메일 기능을 통합했다. 이 회사 제품으로는 리눅스를 OS로 하는 그룹웨어 시스템도 있다.

